

철학적 문제로서의 권위*

최성환 (중앙대 철학과)

**주제분
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주
요
어**

권위, 전통, 사회, 리더십, 노블리스 오블리제

**요
약
문**

이 논문은 ‘탈권위’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방향에서 진정한 권위의 조건을 묻는 작업이다. ‘권위주의 시대’가 양산했던 제반 분야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탈권위주의’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형성된 권위는 공동체의 모든 생활영역에 확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체제 유지적’ 기능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의 원천인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함으로써 더 이상 용인가능한 권위의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 논문은 권위가 비록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필자는 권위의 부재에 따른 한국사회의 심각한 혼란상황, 대립과 갈등을 주목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란 지금 극복의 대상으로 전략한 집단들이 한때 ‘변화와 개혁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변화와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권위’의 회복이 관건인 것이다. 이런 기본 논지에서 이 논문은 진정한 권위의 조건을 형성하는 리더십을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4- AS0027).

1. 들어가는 말: 철학과 시대정신

철학과 시대의 관계정립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항상 철학의 과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왔다. 철학사란 시대에 맞서거나, 함몰되거나, 시대를 이끈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에서 철학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철학 스스로 자신의 권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진단과 함께 자칫 ‘변두리 학문’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철학이 과연 이 세계와 시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행여 철학이 자신의 고유한 과제를 망각하고 디지털 시대의 의미 생산 방식에 따라 수많은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오늘날 ‘사색적 덕목’(die dianoetische Tugend)으로 천착하는 체계적 연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상이다. 단지 ‘가정(als ob)의 미학’, 즉 현실과 무관하게 (또는 착색된 시각으로) 이루어진 임의적인 시뮬레이션과 같은 주장들이 철학의 본업처럼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시뮬레이션은 현실적 연관에서 떨어져 나와 사실상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부호게임’ 같은 것이다.¹⁾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호게임’이 흥미를 통해 심지어 중독증세를 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로 상징되는 철학과 시대의 관계 규정은 철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전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철학은 시대를 자신의 사상 속에서 파악한다”²⁾는 헤겔의 언명은 철학이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대의 실체적인 것’(das Substantielle der Zeit),³⁾ 정신의 ‘가장 내적인 자아’(innerste Selbst)⁴⁾를 그 시대의 역사적 규정성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철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철학은 맹목적으로 전승을 추종하지도 우둔하게 시대 속에 침잠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대에 대해 의식을 갖고 맞서며, 궁극적으로 시대를 형성·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원조로 간주되는 니체 또한 철학에게 ‘세속적인 시대정신을 극복하기를’, 모든 잘못된 시대적 요소들과 비판적 대결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시대역사의 혼잡함’과 ‘개미떼 같은 웅성거림’에 휘말리는 대신 철학은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과제를 가진다. 니체는 철학이 자신의 과제를 외면하고 시대정신과 야합하여 ‘끊임없는 현학적 문화’(haltlose Gelehrtenkultur)에 빠져들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런 문화는 시대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⁵⁾

역사의 정점에서 시대를 결산하는 철학의 과제는 헤겔의 ‘낙관론적 관념론’의 당연한 귀결이며, 마찬가지로 철학이 ‘혼탁한 시대의 제동기’⁶⁾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니체의 주장 또한 그의 ‘비판적인 의지 철학’의 당연한 귀결이다. ‘낙관’과 ‘비판’이 명암을 가르치

1) 루츠 니트함머(이동기 역),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 역사는 끝났는가?, 박종철출판사, 2001, 15쪽 참조.

2)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hrsg. J. Hoffmeister, Hamburg: F. Meiner, 1955), 16쪽.

3) G. W. F. Hegel, *Einleitung in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hrsg. J. Hoffmeister, Hamburg: F. Meiner, 1955), 149쪽.

4) 같은 책, 284쪽.

5) F. Nietzsche,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hrsg. G. Colli u. M. Montinar), Dritte Abteilung, vierte Band, Berlin 1978, Nr. 19 /6, /7, /9, /11, /21 참조.

6) 같은 책, Nr. 19/9.

만 두 철학자 모두 투철한 현실 인식이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고유한 과제는 전문적인 작업 이외에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의 제약 속에 퇴색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설정의 학문’(Orienti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역할이 힘겹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2. 우리의 현실: 탈권위주의의 상흔들

‘탈권위’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현재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다. ‘권위주의 시대’가 양산했던 제반 분야(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탈권위주의’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⁷⁾ 권위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반면,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권위는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혹은 사회적 인정과는 무관하게 강요된 일방적인 명령체계’라는 의미로 수용되고 있다.⁸⁾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권위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체제 유지’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작용하여 왔다. 순기능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아래에서 (비록 강제적인 방식이지만) 한국사회를 결집시키고, 경제적 성장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을 그나마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역기능은 권위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행사되어, 무조건적인 복종과 예속을 강요당하는 계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형성된 권위는 공동체의 모든 생활영역에 확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체제 유지적 기능의 권위(체계)가 ‘진정한 권위’의 원천인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함으로써 더 이상 정당한 방식으로 권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민주화-정보화-국제화 등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 귀결로서의 전통적 권위주의의 붕괴를 우리는 미처 새로운 권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바꾸어 말하면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성장하기도 전에,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는 공공의 담론도 비생산적이고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⁹⁾

7) 양동안,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一考察」,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81쪽 아래 참조. 양동안은 ‘개별 권위’를 거부하는 일반적 원인으로서는 1) 권위의 남용 및 오용, 2) 지속적인 정당화 근거 제시의 실패를 들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공동체 전반에 권위에 대한 부정이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서는 1) 권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의 유형, 2) 공동체 구성원들의 좌절감 확대, 3) 급격한 사회변동, 4) 권위 붕괴의 도미노 현상, 5) 장기간의 평온과 번영을 들고 있다.

8) 배령턴 무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송복 역), 한국학술정보, 2002, 39쪽 참조. 권위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권위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 본성일 것이다. 권위는 사실상 구속(restraint)을 함의하며, 구속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해도 대체로 기분 나쁘게 들린다.

9) 강정인,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3쪽 아래 참조. 강정인은 19세기 말 이후 현대 한국사회는 전통, 종교, 권위의 삼위일체의 붕괴를 경험하며 동시에 근대적 전통과 권위를 새롭게 확립하는 데 실패하면서 권위를 빙자한 파행적인 ‘권위주의’가 위세를 떨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 권위의 부재에 따른 무질서와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와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그리고 일시적 현상(부작용)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로의 충고도, 국가 최고 기관의 결정도 무시되면서 한 국가 안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첨예한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태이다. 이 당혹감은 더 나아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발전한다. 이 불안은 변화와 개혁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의 불안일 수도 있고, ‘용인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들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의 근원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제3의 길, 타협을 모색하는 대신 보수와 진보,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 등 마치 한국인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몰아 부치는 자’와 ‘몰리는 자’) 처절한 생존투쟁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다. ‘원색적인’ 강렬함이 미개함의 징표로 보이는 것은 너무 심한 왜곡인가? 세련된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더 나아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¹⁰⁾ 진정 청산해야 할 것은 반개혁적이고 수구적인 집단이 아니라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바꾸어 말하면 절대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극복의 대상으로 전략한 집단들이 한때 ‘변화와 개혁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어 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결국 ‘변화와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권위’의 회복이 관건인 것이다.¹¹⁾

3. 권위의 복권: 권위의 ‘생활세계적 의미’

우리는 여기서 ‘권위의 복권’이란 표현을 통해 단순히 기존 권위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인간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권

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러한 권위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수직적 인간관(가부장적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인간관, 인치주의를 들고 있다. 특히 인치주의는 법치주의보다 지배자 개인의 덕에 훨씬 더 의존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한다.

- 10) ‘탈권위주의’라는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현실경험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단순한 정치적 권력의 선점을 향한 대립과 갈등이 정치협오와 무관심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삶과 무관한 가진 자의 ‘놀음’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정치적 권력의 ‘권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 사회에서의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진행과 합의 도출 과정은 이원화되어 ‘떠드는 자’와 ‘무시하는 자’ 사이의 점점 없는 아우성으로 들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위’를 얻지 못한다는 슬픈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3) 본질적 과제를 외면한 철학과 문화 담론의 양산은 평면처럼 보였던 세계의 새로운 면모와 의미를 발굴하고 조작과 은폐,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겨내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왜곡’, ‘담론을 위한 담론’에 대한 우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4) 윤리적 영역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은폐된 욕망이 해방되고 감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정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1) H. Pitkin, *Obligation and Consent*, in: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eds. P. Laslet, W. G. Runciman a. Q. Sinner), Oxford 1972, 46쪽. 피트킨은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사람들이 기존의 권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지만, 국가가 병들었을 때, 일부 사람이 불복종이나 저항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정치적 의무의 문제는 절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비추어 지금의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위는 이미 역사적으로 해체와 대체 그리고 변화를 거듭해왔다. 낡은 권위의 해체와 새로운 권위의 성립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권위의 내용적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권위의 형식적 틀은 항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극단적으로 변질된 맹목적 권위에 대한 추종과 권위의 부재에 따른 무질서가 가져다 준 인류 역사의 오점들을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 본성과 권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권위의 ‘개념사’(Begriffsgeschichte)에서 잘 드러난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인간이 상호간에 끼치는 해악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¹²⁾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적인 인간상의 정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정립의 문제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제기되는 가장 원초적인 물음이다. 즉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개인의 창의성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개인들을 하나의 사회로 결속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물음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근본 과제이다.¹³⁾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위의 두 요소가 모든 시대에서 갈등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의 본능적인 형태로 인간성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두 요소의 조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충성, 곧 동일한 영토나 민족이 아니라 동질성을 갖는 신조(creed)에 따른 충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간은 타고난 본능처럼 인류를 친구와 적으로 구분 짓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당연히 친구와 적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때마다 새로운 관계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¹⁴⁾ ‘관계정립’의 양상은 적과 친구를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 권위로 신봉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된 경우도 있고,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간섭과 요구를 제한하며,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과학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 권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¹⁵⁾

또한 권위의 ‘개념사’를 통해 우리는 권위가 인간 공동체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논리학과 수사학(문헌학)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권위(auctoritas)개념은 (사물과 사태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testimonium)를 그 유래와 타당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능은 법정과 정치 공동체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법률적-정치적 의미를 반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권위 개념은 이성(ratio)과 권위의 우선권 논쟁 속에서 진행되는 중세의 성서 ‘해석과 적용’의 맥락에서 문제시되었고, 중세 말에는 황제와 교황의 권력관계를 나타내주는 갈등적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전통적) 권위는 또한 근대 계몽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베이컨의 ‘우상론’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듯, 그릇된 인식의 원천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학적 인식의 권위 물음이 객관성, 명증성 등의 표현으로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시민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권위 문제가 등장하였다. 해체주의 이후의 현대적 논의에서는 권위는

12) B. 러셀, 『권위와 개인』(이중익 역),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130쪽.

13) 같은 책, 11쪽 아래. 여기서 ‘창의성’은 ‘창조하고 소유하려는 충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14) 같은 책, 17-20쪽 참조.

15) 같은 책, 91쪽 아래.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물론 가다머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관점도 있지만) 전통과 가치에 대한 평가, 정치권력의 도덕성, 과학의 경계확장, 예술의 자율성, 텍스트(고전)와 해석의 정당성 문제 등과 연관되어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개념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권위가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활세계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권위의 ‘생활세계적 의미’는 권위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간학적 ‘상수’(Konstante)이며 ‘관계형성의 틀’임을 뜻한다.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권위’는 인류의 역사에서 판단, 판결, 행동결정 그리고 진리의 기준으로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통합원리’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우리는 현대의 철학적 논의에서 권위가 차지하는 철학적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권위문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회이론과의 연관성에서 베버,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취급되어 왔을 뿐이다. ‘권위’는 기존 사회를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할 때 모두 중심적인 의의를 갖는 개념이다. 기존 사회의 붕괴는 바로 전통적 권위의 붕괴이며 새로운 사회의 성립은 새로운 권위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적인 견지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과연 어떤 권위(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4. 철학과 권위: 철학의 권위와 권위의 철학

이제 권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은 철학의 과제 설정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철학의 대응으로 형성되어졌다. 그러나 권위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자기반성으로서 철학적 태도’와 연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적 반성으로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자기반성으로서의 철학적 태도’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철학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학은 현재 ‘상반감정의 양립’(Ambivalenz) 상태에 놓여 있다. 철학은 스스로 ‘지식 권력’으로서 제일학문이고자 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메타적인 근거지우기’와 ‘보편성’을 무기로 이성의 재판정에 내몰린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은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철학은 유희학문(Entspannungswissenschaft) 또는 비현실적 학문이라는 ‘낙인’과 함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시대조류에 휩쓸려 ‘먹고살 만큼 철학하기’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철학이 자기진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노력이다. 또한 철학은 자신의 분석적-개념적 작업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권위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만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라쯔J. Raz는 권위 문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방향과 한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권위의 철학적 설명은 단어의 의미를 진술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철학적, 정치적 전통들 속에 깊이 새겨진 한 개념에 대한 논의이다. 그 개념들은 관념들과 신념들의 전체적인 그물망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구조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인도한다. 그 개념의 지위와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16) K. Röttgers, Autorität (Ar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Stuttgart, 1971, 724-733쪽 참조.

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없었으며 지금도 없다.”¹⁷⁾ 그러므로 권위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단순한 분석적-개념적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그물망의 통합적 요소와 구조를 밝히려는 점진적인 작업’이어야만 한다. 이제 철학은 독단적 태도를 배격하고 대화적 자세에서 권위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학문들(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신학 등)과 함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학은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박함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헤겔의 표현처럼 시대에서 ‘실체적인 것’과 ‘가장 내적인 자아’를 포착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철학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이제 직접적인 ‘탐구방법’에 대해 언급할 순서이다. 이를 위해 권위 개념이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취급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위 개념은 ‘개념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인간 삶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철학의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주제이다. 법철학과 정치철학에서 권위가 권력, 영향력, 권리, 규칙, 정당성 등과 관련되어 논의된 반면¹⁸⁾ 일반 철학에서는 권위 문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그것은 ‘억압과 타율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바람직한 인간성의 이념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자율성이 어떤 합리적 제한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후 이러한 제한에 속하는 힘들에 관심을 표하면서 권위 또한 일반 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¹⁹⁾ 마찬가지로 현대 철학에서 권위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대 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더 이상 ‘하나의’ 통제적-지시적 권위 속에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분석적’ 그리고 ‘구성적’ 방법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권위에 관한 물음이 넓은 의미에서 ‘가치’에 관한

17) J. Raz, Authority and justification,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1, Oxford 1985, 27쪽.

18) M. Philip, Authority, in: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eds. A. Kupper a. J. Kupper), London 1985, 55-56쪽 참조. 필립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위개념의 논의들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생활의 통일과 질서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강제와 합리적 설득의 견지에서 국민의 순종이 권위개념을 상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시 1) 권위적 기반들을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의 신념, 가치, 전통, 관습을 반영하는 견해(T. Parsons, H. Arendt가 이런 논의의 대표자이다), 2) 정치적 권위를 흡수식의 자연상태 또는 공유가치의 결여에 대한 조정책(condination solution)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사회질서가 힘에 의해 부과되었을지라도 그것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정당성, 이데올로기, 주도권, 편견의 동원, 허위의식 등을 통하여 얻는다는 견해(M. Weber, S. Lukes가 여기에 속한다)로 나누어진다. 둘째, 자기 이익의 평가를 통해 권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의 유형이다. 강제는 힘(force) 또는 위협을 사용하여 추종자의 복종을 가져오며, 설득은 어떤 행동이 B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B를 확신시킨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A가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B가 확신할 때 권위에 복종한다. B는 자발적으로 A의 명령 갖는 내용을 평가한 후에 복종한다. 권위가 존재하는 곳에 ‘인정의 규칙들’(rules of recognition)이 존재한다는 H. L. A. Hart 등의 입장이다. 셋째, 권위 ‘사실상의 권위’와 ‘권리상의 권위’로 구분하려는 관점의 유형이다. ‘사실상의 권위’는 B가 적절한 방식으로 A에 복종할 때 나타난다. 권리상의 권위는 제도적인 규칙들로부터 유래하는 일정한 영역에서 A가 B의 복종을 가져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존재한다. R. S. Peters와 P. Winch가 이런 견해를 표방한다. 넷째, 권위를 ‘정당한 권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주장은 1) 강제당한 사람이 A의 권위에 반응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강제가 권리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 행사되며, 2) A의 명령은 실제로 비강제적인 경의를 표시하는 복종의 분명한 형식을 만들어 내며, 그럼으로써 A는 사실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다섯째, 권위를 영향력과 복종의 양식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유형이다.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양쪽이 승인하는 일종의 규범적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R. B. Friedman의 입장을 대변한다. 여섯째, 지적 권위자(an authority)와 직위상의 권위(in authority)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입장의 유형이다. 전자는 특수한 지식, 통찰, 전문성 등의 문제와 관계되고 후자는 법적-합리적 권위처럼 권리상의 권위지위를 인정하고 규범적 질서 안에서 A의 지위에 관계된다.

19) 신득렬, 『권위, 자율 그리고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9쪽.

물음이며, 가치에 관한 논의는 ‘해석’, ‘평가’ 그리고 ‘창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²⁰⁾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아래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권위 개념이 본래 사용된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 기대되는 것은 권위의 ‘원래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구분하고, 궁극적으로 권위의 ‘생활세계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철학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권위개념이 강조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는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둘째, 권위 개념은 ‘분석적 문제’와 ‘규범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특히 권리와 권력 그리고 권위의 상관관계 및 권위가 신념과 행위와 맺고 있는 연관성이 규명되어야 한다.²¹⁾ 셋째,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를 토대로 현대에서 통용되는 권위 개념과 권위체(권위 담지자)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불일치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특히 권위 개념이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내어 권위 개념의 복권을 위한 출발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 개념을 현대 사회의 구조에 걸맞게 재정의 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경쟁적인 개념들을’(contested concepts) 소생·회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에 있어서의 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위체’를 찾아내고 그 구조와 작용방식을 규명하는 다음, 다양한 권위 개념들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5. Exkurs: 권위와 리더십²³⁾

인간 능력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비판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규칙을 전제로 하는 권위관계’와는 다른 ‘사실상(de facto)의 권위’는 우리가 분명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사실상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도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사회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권위에 귀머거리가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협력도 안 정도, 다시 말하면 ‘사회’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²⁴⁾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토인비는 역사연구를 통해 이른바 권위의 독점과 소외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 권위로부터 대중이 소

20)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이경신 역), 민음사, 1998, 14-20쪽 참조.

21) S. Lukes, *Power and Authority*, in: *A History of Sociological Analysis* (eds. T. Bottomore a. R. Nisbet), London 1979, 634쪽. 녹스는 권위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아홉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1) 권위는 정의상 정당한 것인가? 2) 권위는 정의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가? 3) 권위는 강제적인가? 4) 권위는 신념 또는 행위에 행사되는가 아니면 둘 다에 걸쳐 행사되는가? 5) 권위 개념의 용법이 규범적인가 또는 경험적인가? 6) 권위는 인과적 문제인가 또는 내적 관계인가? 7) 권위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가? 8) 권위에의 복종이 이성의 구사와 양립할 수 있는가? 9) 권위는 자유와 자율성의 부정인가 때로는 조건인가?

22) T. Ball, *Authority and conceptual change*, in: *Authority Revisited* (eds. J. R. Pennock a. J. W. Chapman), New York 1987, 40쪽 참조.

23) 신득렬, 위의 책, 22-50쪽 참조. 여기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서의 권위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권위는 일반적으로 1) 명령, 2) 정당성과 자격, 3) 개인적인 능력, 4) 권리로서의 권위, 5) 이유(reason)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24) Bertrand de Jouvenel, *Sovereignty: An Inquiry into Political Good* (Trans. J. H. Hunting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7, 31쪽.

외됨으로써 나타나는 비극적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때 권위는 대중을 인도하는 역할 대신 명령하고, 잔인하고, 아득하고 무서운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²⁵⁾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서문」에서 우리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인물에 맹종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위대한 인물들이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일부는 자유와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²⁶⁾ 이런 의미에서 권위는 무엇보다도 ‘동의’, 즉 자발적 행동으로서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어야 한다. 자발적 동의가 끝나는 곳에서 권위도 끝난다. 모든 국가에서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의 위협에 의해서만 획득되어지는 복종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영역이 바로 자유를 파손하고 권위의 실패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다.²⁷⁾ 인간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칸트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⁸⁾ 그 만큼 지도자 선택은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알포드 Fred C. Alford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집단들은 스스로를 지도할 수 없다. 지도자들은 동기를 유발하고 영감을 주고, 교육하고, 지도하며 안내한다.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대담하고 탐욕적인 사람을 억제하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시킨다. 지도자들은 여론을 만들어 낸다. 지도자들은 논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분파들을 조종하며 피억압자에게 위안을 준다. 지도자는 희망을 살아있게 한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도하는 집단들을 결집시켜 집단의 성공으로부터 자기도취적인 만족을 얻는다. 추종자들도 이 만족을 공유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병들면 집단들은 그들을 배려한다.”²⁹⁾

알포드가 제시하는 지도자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물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설정에 가깝다. 그러나 그가 ‘조정자로서의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와 대중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이 관점을 ‘지도자’라는 표현에 ‘경쟁적인 현대의 개념’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한다. 영어표현인 ‘리더십’은 오늘날 정치적 영역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권위 개념을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권위의 행사가 동의를 얻어내는 능력, 즉 권위자의 ‘이성에 의거한 정교화 능력’(capacity for reasoned elaboration)에서 유래하므로 권위 수용자의 측면에서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적 자질로서의 ‘이성에 의거한 정교화 능력’은 의사소통에 의해 특정한 권위를 관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자발적 동의와 더불어 결과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³⁰⁾ 또한 리더십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권위의 행사에 따른 실제적 영향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는 실천적 장점이 있다.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 필요한 권위는 각 영역에서 ‘이성에 의거한 정교화 능력’을 구비한 인물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는 정치적 권력이 권위를 독점함으로써 권위 자체에 식상하거나 존경할만한 권위마저 무시해버린

25) J. Wild, Authority, in: *Authority* (ed. F. J. Adelman), The Hague, 1974, 7쪽.

26) Karl R.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한구 역), 1권, 민음사, 1997, 5쪽(제1판 서문).

27) Bertrand de Jouvenel, 위의 책, 33쪽.

28) I. Kant,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in: 『칸트의 역사철학』(이한구 편역), 서광사, 1992, 32쪽.

29) Fred C. Alford, *Group Psychology and Political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994, 153쪽.

30) Carl J. Friedrich, *Tradition and Authority*, London 1972, 55쪽.

경우가 허다했다. 오늘날 매스컴의 보도는 마치 세상에서 할 일이 정치밖에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권위가 형성되고 인정받으며,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때 ‘전체적인 그물망의 통합적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용하고 그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위에서 언급된 능력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조건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도덕적 자세’이다. 그것은 먼저 리더가 차지한 위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혜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공동이익을 위한 자기희생적 노력과 봉사가 권위의 원천들 가운데 하나인 ‘존경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자세를 구비한 리더는 전문능력을 통한 공동체의 ‘인정’과 함께 자신의 권위의 상승작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권위의 또 다른 원천인 ‘숭배’와 ‘맹신’은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세는 숭배와 맹신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기개발 노력과 (권위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절제하는 태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³²⁾ 칸트 또한 식견(경륜)과 체제에 대한 통찰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라고 말하고 있다.³³⁾ ‘선한 의지’는 권위가 공동체의 통합원리로 기능하도록 동기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Noblesse Oblige’(신분이 높으면 의무 또한 무겁다)라는 경구를 우리는 모든 영역의 리더십의 가장 선행적인 조건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6. 나오는 말: 전통의 메시지

탈권위주의는 권위의 종말인가? Wozu noch Historie?, Wozu noch Philosophie? 등과 같은 ‘역사의 종말’, ‘철학의 종말’에 대한 ‘종말의 담론’이 한 때 기성을 부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탈권위주의도 ‘권위의 종말’을 의미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탈권위주의의 ‘맹목성’, ‘관성’ 그리고 ‘자아도취’를 경계해야만 한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해체가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다음 세대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를 가능케 하였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비해야만 한다.

전통이란 표현 역시 권위개념과 마찬가지로 ‘탈권위주의’의 흐름 속에서 불신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가다머의 ‘선입견과 전통의 복권’과 ‘지평융합’이라는 발상을 언급하

31) 정영국,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一考察」에 대한 논평, 『권위와 문화』, 정신문화연구원, 1997, 109쪽 아래 참조. 정영국은 1) 민주화의 영향, 2) ‘표준화 시대’에서 ‘다원적인 정보화 사회’로의 사회구조의 변화, 3) 국제화를 통한 ‘문화적, 사회가치 충격의 일상화’라는 demonstration effects를 권위 위기의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권위’가 새로운 권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될 권위도 과거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위상, 즉 ‘사회적 생명’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권위의 행사도 과거의 통제적, 지시적 행사는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32) 양동안, 위의 논문, 76쪽 아래 참조. M. Weber 이래로 권위를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한 이론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의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는 1) 인정(recognition), 존경(deference), 숭배(worship)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인정은 정당성의 심리적 기반이 되고, 존경은 권위의 심리적 기반이며, 숭배는 맹신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이로부터 각각 법과 제도에 수반되는 권위, 전통과 관습에서 비롯되는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33) I. Kant, 위의 논문, 33쪽.

지 않아도 우리는 전통과 단절될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변화와 개혁의 ‘명분’도 새로운 권위의 ‘창출’도 전통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만약 전통을 무시한다면 자신들이 제시한 권위가 언젠가 폐기처분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는 형국이 된다. 그들은 이때 ‘시대적 요청과 당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장구한 역사적 전통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전통 없이는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세대의 연속 속에서 유지될 수 없다. 전통은 계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저항하는 튼튼한 섬이다. 전통을 통하여 고전적인 권위들의 통찰과 호소가 유지되고 앞으로 올 새로운 권위들을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세대들에게 전달된다. (...) 사회적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전통은 과거의 예외적이고 본래적인 통찰과 현재의 자유정신을 연결하는, 참된 권위를 보존하고 격려하는 최대의 힘이다.”³⁴⁾

물론 전통은 그 작용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 “확실히 지나치게 많은 전통은 정치 질서를 경직시키지만,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적은 전통은 공동체와 질서를 확실히 손상시키고 해체시킨다.”³⁵⁾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형태의 수용과 단절은 제로섬 게임처럼 발전 없는 소모적 논쟁이며,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의 해체는 탈(무)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창출이며, 이것은 전통과의 화해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이룩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전통은 모든 공동체를 낳은 아버지이다. 전통 없이는 권위가 있을 수 없으며 권위 없이 전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성의 적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합리적 담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³⁷⁾

전통과의 ‘열린’ 대화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의 토대, 즉 공동체의 통합원리로서의 ‘진정한 권위’의 조건들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자, 철학의 고유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권위주의 시대’에서 권위를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선구적 발상’이 될 것이다.

34) J. Wild, 위의 논문, 16쪽.

35) Carl J. Friedrich, 위의 책, 14쪽.

36) 아널드 J. 토인비, 『미래를 살다』(최혁순 역), 문예출판사, 2001, 44쪽 아래 참조. 전통과의 화해라는 측면에서 토인비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 대해 말한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기성세대가 서투르고 경멸할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가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이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두 세대 사이의 화해를 시도함에 있어서 기성세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토로한다.

37) 같은 책, 56쪽.

참고문헌

- 강정인,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신득렬, 『권위, 자율 그리고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 양동안,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一考察」,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영국,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관한 一考察」에 대한 논평, 『권위와 문화』, 정신문화연구원, 1997.
- Ball T., Authority and conceptual change, in: *Authority Revisited* (eds. J. R. Pennock a. J. W. Chapman), New York 1987.
- Betrand de Jouvenel, *Sovereignty: An Inquiry into Political Good* (Trans. J. H. Hunting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7.
- Carl J. Friedrich, *Tradition and Authority*, London 1972.
- Deleuze G., 니체와 철학(이경신 역), 민음사, 1998.
- Fred C. Alford, *Group Psychology and Political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994.
- Hegel G.W.F., *Einleitung in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hrsg. J. Hoffmeister, Hamburg: F. Meiner, 1955).
-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hrsg. J. Hoffmeister, Hamburg: F. Meiner, 1955).
- Kant I.,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in: 『칸트의 역사철학』(이한구 편역), 서광사, 1992.
- Karl R.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한구 역), 1권, 민음사, 1997.
- Lukes S., Power and Authority, in: *A History of Sociological Analysis* (eds. T. Bottomore a. R. Nisbet), London 1979.
- Moore B.,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송복 역), 한국학술정보, 2002.
- Niethammer L.,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이동기 역), 박종철출판사, 2001.
- Nietzsche F.,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hrsg. G. Colli u. M. Montinar), Dritte Abteilung, vierte Band, Berlin 1978.
- Philip M., Authority, in: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eds. A. Kupper a. J. Kupper), London 1985.
- Pitkin H., Obligation and Consent, in: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eds. P. Laslet, W. G. Runciman a. Q. Sinner), Oxford 1972.
- Raz J., Authority and justification,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1, Oxford 1985.
- Röttgers K., Autorität (Ar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Stuttgart, 1971.
- Russel B., 『권위와 개인』(이종익 역),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 Toynbee A. J., 『미래를 살다』(최혁순 역), 문예출판사, 2001.
- Wild J., Authority, in: *Authority* (ed. F. J. Adelman), The Hague, 1974.

Autorität als ein philosophisches Problem

Sung-Hwan, Choi

Thema dieser Arbeit ist Autorität als ein philosophisches Problem. Autorität als ein philosophisches Problem beinhaltet die Frage nach den Bedingungen der authentischen Autorität. Ausgehend von der Auffassung, daß die Autorität für das menschliche Leben unentbehrlich ist, versucht diese Arbeit, Rahmenbedingungen der Autoritätsfrage deutlich zu machen. Zunächst wird es versucht, begriffsgeschichtlich die positiven Bedeutungen der Autorität darzustellen. Daraus wird es deutlich, daß die Autorität trotz der inhaltlichen Veränderungen in der menschlichen Geschichte eine notwendige Bedingung für einen stabilen Zusammenhalt der Menschen ist. Als sich die Grundzüge der heutigen Gesellschaft herausbildeten, stand die Legitimität der traditionellen Autorität Mittelpunkt der sozialphilosophischen Überlegungen. In diesem Sinne hat sich Horkheimer mit dem Problem 'Familie und Autorität' beschäftigt. Offenbar hat es in der Gesellschaft immer den Streit zwischen neuen Traditionen und alten Traditionen gegeben. Aber Autorität ist immer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Zusammenhaltes von den verschiedenen gesellschaftlichen Schichten gewesen. Autorität ist ursprünglich ein negativer Begriff. Aber Autorität ist unentbehrlich, sofern die Menschen auf ein Zusammenleben abziel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ird es aufgefordert, die traditionelle Autorität zu überwinden. Dies besagt, daß eine neue Autorität die alte Autorität ersetzen muß. Dennoch muß man einräumen, daß die Autorität trotz ihrer historischen Bedingtheit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für die Sicherung der Gesellschaft ist.

Zum Schluß wird hier betrachtet, welche Rolle einer leitende Persönlichkeit (leadership) in der Gesellschaft spielt. Als ein Modell der leitenden Persönlichkeit hat diese Arbeit 'Noblesse Oblige' hervorgehoben.

Schlagwörter: Autorität, Gesellschaft, Tradition, leadership, Noblesse Oblige

최성환 e-mail : shchoi@cau.ac.kr

논문접수	2005년 3월 16일
논문심사	2005년 4월 6일
심사완료	2005년 4월 20일

K C I